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100교회 운동』

### 지난 8일로 100교회 후원 확정

### 101교회부터는 목회자 신학세미나 참석한 교회도 대상으로

우리교회가 지난 설립 3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시작한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운동」이 성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100교회 지원운동 본부>에 신청한 후원자와 자매결연이 확정된 농어촌 교회의 수가 100교회를 넘어섰다.

「100교회운동」에 참여한 후원자 현황을 보면 개인 및 가정이 41교회로 가장 많고,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각각 20교회, 29교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락방에서 7교회, 교회학교가 3교회 그리고 찬양대에서 1교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100교회에는 이미 1월부터 지원금을 보내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에 그달의 지원금을 송금한다. 따라서 후원자들은 「100교회 운동」을 위해 교회에서 별도로 마련한 붉은색 봉투에 후원자, 지원교회명 등을 기재하여 매월 셋째 주일까지 현금하면 된다.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농어촌 교회 목

회자들의 부족한 최저생계비에 약간의 보탬이 될 뿐이지만 지속적인 기도와 마음으로 보내는 응원은 힘이 모자라는 농어촌 교회에 큰 격려가 되며,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100교회운동」은 100개 교회를 넘어서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후원하기로 한 농어촌 100교회는 총회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자

립도가 낮은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나 101번째 교회부터는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한 교역자의 소속 교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관을 가지고 이 일을 더욱 확산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되어야겠다.

문의 및 후원신청은 <100교회운동 본부>로

#### 『100교회운동』자매결연 현황

1995년 2월 8일 현재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94	서울서남노회	목향교회	김오룡 목 사	가브리엘찬양대
95	-	장호원요동교회	김영한 목 사	베드로 4 선교회
96	대구동노회	심명교회	김승재 목 사	장년부 교사
97	영주노회	춘양농아인교회	이종순 전도사	박두호
98	경서노회	공검서부교회	정주옥 전도사	왕원희, 왕지운, 왕재웅
99	전북남노회	반석교회	권연수 전도사	김상식
100	충남노회	주교은평교회	강희영 전도사	김계우
101	-	신산교회	심규백 목 사	대치 4, 5 다락방

■ 개인·가정 / 41교회    ■ 남선교회 / 20교회    ■ 여전도회 / 29교회    ■ 다락방 / 7교회    ■ 교회학교 / 3교회    ■ 찬양대 / 1교회

###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 농어촌 목회자 자녀에도 지급기로

금년부터 우리교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수혜자에 농어촌교회의 목회자 자녀도 포함하기로 했다.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회장: 이남호 장로)에서는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100개를 넘어섬에 따라 지급까지 교회 내 우수 청소년들과 대외장학금으로 극빈자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이번 학기부터 농어촌 목회자 자녀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장학금 지급 대상의 확대는 전도위원회(위원장: 박철훈 장로)가 농어촌 사역에 종사하는 목회자들이 자녀교육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학위원회에 장학금지급을 건의, 당회의 승인을 받고 이번 학기부터 시행케 됐다.

우리교회의 장학정책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방향을 전환케 된 것은 작년부터 시작한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이 조용히 성과를 거

두면서 민족복음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에 기인한 것이다. 이번 농어촌 목회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결정은 전국 구석구석에

### 막으려는 겨울성경학교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가 겨울성경학교를 개최한다.

- 유치부 /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어요”라는 주제로 23일(목) ~ 24일(금) 양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강사는 김경아 전도사.
- 유년부 / “하나님과 맺은 약속”라는 주제로 23일(목) ~ 24일(금)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강사는 이종윤 목사, 박종상 전도사.
- 초등부 / “하나님과 맺은 약속”라는 주제로 23일(목) ~ 24일(금)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덜어줌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활력있는 목회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격월로 드리는 장학현금에 우리 교회성도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천국시민 양성을 위한 선한 일에 부해야겠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강사는 이종윤 목사, 권상석 목사, 박종상 전도사.

- 사랑부 / “새롭게 변화된 나”라는 주제로 21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사는 임진태 목사.

각 부서에서는 겨울성경학교가 학생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귀한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들은 여러 차례 모여 강습회와 기도회를 갖는 등 겨울성경학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창세기 강해



# 부끄러운 죄

(19장 30 ~ 38절)

이종운 목사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의 손에 이끌리어 겨우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명하신 곳까지 이르지 못하고 소알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산으로 피한 롯은 동굴에 거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술에 취하여 부끄러운 죄를 짓고 맙니다.

세상에 비극이 많지만 동성연애의 죄를 범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피한 롯이 그보다 더 무서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으니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롯의 이야기는 수처스럽고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으니 절망과 수치와 인간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죄의 길은 언제나 내리막 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옴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로 내려갔습니다(은1:3). 배값을 지불한 후 그는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은1:5).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은2:6). 결국 그가 가고자 하는 곳에는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까지 계속 내리막 길로 치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3)고 하였습니다. 죄는 또다른 죄를 불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늘 존재보다는 조금 못하게, 그리고 만물보다는 조금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시 8:5-8). 그러므로 사람은 위를 바라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래를 쳐다보면 점점 더 짐승과 같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타락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 2.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도 미칩니다.

십계명을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

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 6)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은 천대까지 이르는 데 진노는 삼 사대에 이르니 공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진노가 삼 사대에 이르면 그 가문은 망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삼 사대가 받은 저주의 열매를 그 후손들이 수천년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이 소돔에 거주한 것은 자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 롯의 선택을 따른 것 뿐입니다. 롯이 만일 계속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화평하게 지냈더라면, 그의 딸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결혼 상대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불행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의 죄가 후대에 큰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낳았다’는 뜻이며, 암몬은 ‘내 백성의 아들 곧 가장 가까운 혈종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잠시동안은 우호관계로 지내기도 하였으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퇴폐한 풍조를 후대에 계속 전함으로써 하여 결국은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암1:13절 이하, 2:1절 이하). 모압 자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랍 자손이 바로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린 조상의 죄가 후대에까지 이르는 무서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니 우리는 나만의 구원 뿐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 3. 죽음인가? 부활인가?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이 있는 마브레로 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롯이 피한 산은 마브레와는 정반대방향의 동쪽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 기회를 잃고 소돔성에서 불타버렸을 것에 대한 원망과 실의에 빠져 술을 마시고 취하여 범죄

하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그 타락한 모습에 있어서는 롯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와 죄를 자백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외칩니다. 탕자는 멀리갔다가 온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롯은 죽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롯과 탕자 뿐 아니라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엡2:1). 하나도 예외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부끄러운 죄에서 자유할 수도 없었고, 다시 살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55:6, 7).

순례자 클럽

## 오늘을 사는 지혜

우리는 결코 현재에 정착하지 않는다. 미래를 앞질러 가기도 하고, 마치 오는 것이 너무 더디기라도 한듯 그리고 그 걸음을 재촉하기라도 하듯 과거를 저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 우리는 있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그것으로 오늘을 지탱해 보려고 한다.

과거와 현재는 미래를 조절하는 수단이고 그 미래만이 목적이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항상 행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가 보다.

그러나 현재 속에 담긴 삶의 진실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자. 사라진 과거, 오지도 않은 미래에 붙잡혀 현재를 빼앗기는 우를 범하지 말자.

하나님은 항상 오늘을 찾고 계신다.

■순례자 캠페인 -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 3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홍해작전, 비전2000운동)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 ①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배운다.
- ②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 ③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 (홍해작전, 비전2000운동)
- ④ 진단 / 개인기도생활, 기도모임
- ⑤ 제언

해마다 6월 6일이 되면 우리교회는 '홍해작전'을 시작한다.

'홍해작전'이란 출애굽한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신앙의 본을 따라, 오늘 우리가 당면한 많은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으로 붙인 이름이다.

많은 성도들은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인 이 때만이라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려고 '홍해작전'을 기대감 속에 기다린다. 원근각처에서 새벽에 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는 기간이며, 많은 사람이 새벽기도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기와 가족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기도의 기회이며, 현충일에 즈음하여 시작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금식기도를 선포하기도 한다.

특별히 '홍해작전'은 기도작전이요 아울러

말씀에 근거한 작전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불가분의 것이며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균형을 가지고 굴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홍해작전'이 말씀과 기도의 작전이라면, '비전2000운동'은 기도와 전도의 작전이다. 모든 사람을 복음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교회 설립 일 50일 전에 시작하여 50일간 계속한다.



태신자를 정하는 일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까지 매순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기도, 연속기도, 정오의 기도 등 무시로 기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전도훈련이 진행되고, 전도를 위한 특별 기도제목이 주어진다. 평소에 전도에 관심이 없던 성도들도 이때만큼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

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매년 하는 두 행사가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도가 어떤 운동의 양상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모일 때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홍해작전'이나 '비전2000운동' 기간에만 활기를 띠고 그기간 이후에는 스러져가는 일이 반복되어 해마다 제자리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서는 안될 것이다. 두 개의 행사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기도생활이 깊어지고, 성숙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날마다 매순간 습관처럼 기도하는 일이 체질화될 때, 특별한 기도회의 기회가 진정으로 의미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매일의 발걸음에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홍해작전'이나 '비전2000운동'을 통해 말씀을 받고 개인의 비전과 우리교회의 잠재력, 나아갈 방향, 이 시대의 향도자로서의 책임을 발견했다면, 그 모든 일을 하나 하나 감당해가기 위해 행사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쉬지않고 기도하는 일 역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도 힘써 이루어가야 할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의 과제를 놓고 우리는 날마다, 부단히 기도해야 한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 ▶ 광야의 소리

### 유연성있는 교회교육

교육은 교회의 십년대계(十年大計)라고 한다. 이 말에는 중요한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교회교육이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10년을 두고 계획해야 할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관심을 쏟아야만 한다. 요즘 교회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줄어 들고, 청년들이 떠나며, 교회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멀지 않아 서구교회처럼 노령화되는 것은 아닌가고 성급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신세대에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신세대와 대화하여야 한다. 복음은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등 각종 첨단 문화를 친구로 삼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교회교육도 변화하는 세대에 유연성있게 대처하며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멈추지 않고 성장해 갈 것이다.



일러스트 / 김은희

#### ▶ 제6차 김치 신화세미나를 준비하며

## 파키스탄

- 여기가 땅 끝 -

파키스탄은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력, 부패, 그리고 손쓸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암울함과 두려움 속에 있다. 회교화로 인해 소수 종족들의 피해가 심하고 그들의 샤리아 법은 기독교인에게 부당한 처벌을 합리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왔다. 기독교인임이 드러나면 박해가 심하고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며,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아 정치적으로도 소외된다. 기독교인의 재산이나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 전혀 없다. 기독교 공동체들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다.

- ① 파키스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실제로 갈급한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복음에 대해 마음문을 열도록 기도하자.
- ② 모든 파키스탄인들이 종교,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기도하자.
- ③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파키스탄의 교회들이 고난을 통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강해지도록,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이들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자.



필그림출판사  
**요한복음 강해 ④**  
**출간**

이종윤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제 4권이 필그림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이종윤 목사가 1991년 12월부터 1993년도 4월까지 수요예배에서 강해한 것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21장까지를 59장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석하여 그 빛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해보려 한 요한복음 강해서는 이 4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이 책은 교회 테이프 보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생명의 말씀사가 총판하여 전국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국판 488면 / 7,300원)

**올해도 육사 생도 세례식 주관**  
3월 11일(토)에 육사교회에서

'95 육군사관학교생도 세례식이 3월11일 (토요일)오후 2시 육사교회에서 이종윤목사 집례로 거행된다.

우리교회는 군복음화에 기여하고자 1993년부터 해마다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을 주관하여 왔는데 올해가 세번째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교회는 세례식 후 수세자들에게 영한대역성경을 기증하고 다과회를 베풀어 이들의 영적 새출발을 축하하게 된다.



육사생도 세례식 광경(1994년 3월, 육사교회)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I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목회와 영성” 주제로

· 때 / 3월 27일 ~ 6월 5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 곳 / 강남 YMCA 대강당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제 7학기 목회자신학 세미나가 오는 3월 27일에 개강한다. 연구원은 이번 학기의 주제를 「목회와 영성」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강의와 강사진을 확정하였다.

신청서는 13일(월)부터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접수한다.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3/27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교회갱신과 영성 임 옥목사(한기총 회장)
4/3		선지자들의 영성 김정우 박사(총신대 교수)
4/10		요한 신학에 나타난 영성 이상훈 박사(서울신대 교수)
4/17		청교도들의 영성 원종천 박사(아세아연합신학원 교수)
4/24		칼빈의 영성 S. 로간 박사(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5/8		성령운동과 영성 이호영 박사(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5/15		설교자와 영성 임영수 목사(영락교회 담임)
5/22		예식과 영성 정장복 박사(장신대 교수)
5/29		바울 목회와 영성 박형용 박사(합신대 교수)
6/5		기술사회와 영성 오성춘 박사(장신대 교수)

\* 5월 1일(근로자의 날)은 휴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일 / 1995년 2월 13일 ~ 3월 27일
-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의 신청서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137 - 040 서초구 빈포동 737 - 3 (서울교회사부국)  
TEL. 517 - 7651 ~ 5, FAX. 512 - 1225

■ 목회자 동정, 교우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3일(월)에 전북 전주에서 전라선교협의회, 한일신학대학, 전북 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선교협의회 초청 세미나에서 “세계선교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 김명심 집사(2교구)는 강남구 도곡 사거리에 「돈까스 집」을 개업하고 예배를 드렸다. ☎ 3453 - 0649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농어촌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2.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온전한 천국시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3. 제 7학기 목회자세미나와 제 6차 킵시세미나를 은혜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4. 파키스탄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